

남북전쟁과 청교주의—에밀리 디킨슨의 시를 중심으로*

오 영 광

Oh, Youngkwang. "The Civil War and Puritanism: A Reading of Emily Dickinson's Poems." *New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64.3 (2022): 67-83.

Abstract

This essay examines Emily Dickinson's poems in their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with particular attention given to the considerable influence the Civil War had on her poems. Literary criticisms of Dickinson often scrutinize her poems without sufficient consideration of her environment because she lived in seclusion and did not directly refer to the Civil War in her writing. However, the writing Dickinson produced at this time was shaped by the trauma of war. Her poems serve as testament to Dickinson's sensitivity to the tragedy enveloping the nation. By analyzing her poems, I examine how Dickinson criticizes the brutality of war and religion for its idealization of death while acknowledging the utility of the Christian religion for mourning and consolation it provided for the lives lost in war and survivors in times of grief.

(Sungkyunkwan University)

Key Words

Emily Dickinson, the Civil War, puritanism, death, mourning

* 이 논문은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오영광의 석사학위논문(2022년)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I. 서론

에밀리 디킨슨(Emily Elizabeth Dickinson, 1830-86)은 청교주의의 전통이 뿌리 깊게 박힌 지역인 뉴잉글랜드의 매사추세츠주 앰허스트에서 태어나 1861년부터 칩거한 채 은둔이라는 독특한 생활을 하며 생을 마감했다. 디킨슨은 은둔이라는 전기적 사실로 인해 “은둔의 여왕”(Leyda 76)과 사회를 등지고 수도 생활을 하는 “뉴잉글랜드의 수녀”(Juhasz *Naked* 9)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디킨슨은 은둔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초기 비평가들은 지인들과의 사별과 사랑의 실패를 겪은 디킨슨의 불행한 경험이나 어머니로부터 온전한 여성의 역할을 물려받지 못해 발생한 심리적 분열과 불안 등 전기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은둔의 원인과 그녀의 시적 세계를 분석했다.¹⁾

페미니즘 비평은 디킨슨을 탈속적인 시인으로 강조했던 기존의 비평들과는 달리 은둔을 가부장제와 청교주의의 전통이 지배하던 19세기 남성 중심적 위계질서에 저항하는 적극적인 전략으로 해석한다. 수잔 구버(Susan Gubar)와 샌드라 길버트(Sandra M. Gilbert)는 디킨슨을 남성 중심 사회가 만들어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그녀 자신만의 사회”(620)를 구축하고 그곳에서 “자기 창조”(582)를 통해 다양하고 독특한 시적 실험을 했던 여성시인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페미니즘 비평은 시인을 사회와 연결시키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사실에 집중하여 디킨슨과 그녀의 작품에 대한 이해를 여전히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함으로써 당대 가장 중요한 사건인 남북전쟁(the Civil War, 1861-65)과의 연관성을 간과한다.

1) 조지 휘처(George Whicher)와 존 코디(John Cody)는 디킨슨의 전기적 사실에 입각하여 그녀를 연구했던 대표적인 비평가들이다. 특히 코디의 저서 『커다란 고통 후에: 에밀리 디킨슨의 내적 생애』(*After Great Pain: The Inner Life of Emily Dickinson*)는 어머니의 부재로 야기된 여성으로서의 역할의 실패, 사랑의 결핍,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 불안과 좌절 등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디킨슨의 시를 연구한 대표적인 예이다.

디킨슨과 동시대에 활약한 남성시인 월트 휘트먼(Walt Whitman)은 내전 당시 신문기자와 간호사로 참전하여 직접 죽음을 체험하였다. 또한 그는 1865년 4월 15일에 암살된 링컨을 추모한 시 「오 캡틴! 나의 캡틴!」(“O Captain! My Captain!”)을 남겼다. 반면에 디킨슨은 참전하지도 않았고 작품에서 애국적 수사를 구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1984년에 캐런 댄더런드(Karen Dandurand)는 전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간된 『드럼 비트』(*Drum Beat*)에 디킨슨이 시²⁾를 기고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녀와 남북전쟁 간의 연관성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 나아가 시이라 월로스키(Shira Wolosky)는 디킨슨이 전쟁 이전부터 지니고 있던 청교주의에 대한 회의와 남북전쟁을 연결한다. 당시 청교도들은 신의 섭리와 도덕적인 선에 근거하여 이상적인 공동체를 수립하면서 인간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죽음을 내세에서 영원과 불멸로 보상받는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청교주의의 교리는 당대 미국 전역에 죽음을 극명히 각인시킨 남북전쟁과 연관되어 전쟁과 참전한 군인들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했다.³⁾ 월로스키는 디킨슨이 전시의 죽음을 신에 의해 허가된 계획(44)이자 현실의 고통을 달래는 약속된 보상이라는 종교적 수사학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한다(61).

그렇지만 디킨슨은 월로스키의 주장처럼 전쟁을 정당화한 청교주의에 대한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시기에 위안을 주는 능력을 가진 기독교적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복합적인 태도를 취한다. 따라서

2) 「황금빛으로 불타오르다 자줏빛으로 사라지네」(“Blazing in Gold and quenching in Purple” Fr 321)는 “일몰”(Sunset)이라는 제목으로, 「꽃들을—잘 아는—누군가가 있다면」(“Flowers—Well—if anybody” Fr 95)은 “꽃들”(Flowers)이라는 제목으로, 「이는 새들이 돌아오는 날들이네—」(“These are the days when Birds come back—” Fr 122)는 “10월”(October)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Dandurand 18).

3) 벤티 하트만(Betsy Hartmann)은 남북전쟁이 병사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대상으로 삼은 전면전으로 전이되면서 양군의 지도자들과 성직자들이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의 권위를 내세웠다고 주장한다(23). 또한 마이클 스티븐슨(Michael Stephenson)은 당시 종교가 전사자들의 죽음에 종교적이고 애국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죽음을 최후적이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애국적인 숭고함과 기독교도다운 희생이라는 신성한 행위로 바꾸었다고 강조한다(155).

본 논문에서는 디킨슨이 그녀의 시에서 전쟁과 그 잔혹한 본질을 감춘 종교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비판하는지, 그리고 희생자를 애도하고 전쟁의 공포와 상흔을 겪은 생존자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종교 수사학의 유용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II. 본 론

디킨슨은 시에서 “전쟁과 관련된 쟁점, 노예제도나 복군, 특정한 전투에서의 승리나 패배 그리고 양군의 영웅들”(Sewall 536)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전화에 무관심한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디킨슨이 “남북전쟁 시기에 전체 시편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852편의 시를 썼다”(Wolosky 32)는 사실은 미국이 지금까지 치른 어떠한 전쟁보다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내전이 디킨슨에게 창작을 위한 중요한 자극제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디킨슨과 남북전쟁의 연관성은 1863년 2월 그녀의 문학 조언자였던 토마스 히긴슨(Thomas Wentworth Higginson)에게 쓴 편지에 잘 드러난다. 이 편지에서 디킨슨은 “전쟁이란 저에게 애매한 곳으로 느껴져요—”(War feels to me an oblique place— L 280⁴⁾)라고 말하며 참전한 히긴슨과는 달리 자신은 직접 전쟁터를 목격하지 않았기에 “간접적인,” “애매한”이라는 의미를 지닌 “oblique”로 전쟁을 표현한다. 하지만 “oblique”가 “비뚤어진, 그릇된, 부정한” 등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녀가 이성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동족상잔의 비극과 전쟁의 비도덕성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판적

4) 본 논문에서는 토마스 존슨(Thomas H. Johnson)의 『에밀리 디킨슨 서한집』(*The Letters of Emily Dickinson*, Cambridge: Harvard UP, 1958)과 랄프 프랭클린(R. W. Franklin)의 『에밀리 디킨슨 시집』(*The Poems of Emily Dickinson*, Cambridge: Harvard UP, 1999)을 텍스트로 삼는다.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편지는 L로, 시는 Fr로 표기하며 시의 원문과 번호는 프랭클린이 편집한 판본에 따라 표기한다.

인 관점은 디킨슨의 시에서도 드러난다. 그녀는 「당신은 불을 끌 수 없네—」(“You cannot put a Fire out—”)라는 시에서 전쟁을 쉽게 진화되지 않는 불에 비유한다.

당신은 불을 끌 수 없네—
 점화할 수 있는 것은
 불탈 수 있지, 스스로, 부채질도 없이—
 가장 느린 밤에—

You cannot put a Fire out—
 A Thing that can ignite
 Can go, itself, without a Fan—
 Opon the slowest night— (Fr 583, 1-4)

이 시의 화자는 전쟁이 시작되면 이 사태가 돌이키기 힘든 상황임을 보여준다. 화자는 불이 스스로 그 규모를 키워가기 때문에 느리게 흘러가는 고요한 밤에도 진화(鎮火)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전쟁의 불씨가 부채질도 필요 없이 번지는 상황은 남북전쟁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된 실제 역사적 과정과 유사하다. 남북전쟁은 1861년 4월 12일에 남부 연합군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 항구에 위치한 섬터 요새(Fort Sumter)를 공격함으로써 발발했다. 국지전으로 시작한 이 전쟁은 4년간 남과 북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는 전면전으로 치달아 미국 역사상 최대의 사상자를 낸 내전으로 확대되었다. 이 시에서 디킨슨은 참전한 모두가 스스로 그 전쟁의 불씨를 키워가기 때문에 한 번 전쟁이 일어나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음 시 「만일 누군가가 쓰러진다면, 이는 분명, 지금 서있는 자들이—」(“If any sink, assure that this, now standing—”)에서 디킨슨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불처럼 번진 전쟁이 끝나는 상황에 대해 지적한다.

최악을 말하는 것은, 쉽지 순식간에—
 끔찍한 것은, 총알이 다가오는, 오직 웅 소리—
 총알이 들어올 때, 침묵도 들어오지—
 죽음은—죽일 힘을 무력화시키지—

Tell that the Worst, is easy in a Moment—
 Dread, but the Whizzing, before the Ball—
 When the Ball enters, enters Silence—
 Dying—annuls the power to kill— (Fr 616, 5-8)

화자는 현재 자신이 경험하는 최악의 상황을 전달한다. 그 상황은 다른 주변의 모든 소음은 들리지 않고 공포감을 조성하며 오직 웅 소리만 내는 총알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고 있는 순간이다. 그 총알을 맞은 화자는 순간적인 고통으로 인해 침묵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때 화자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깨달은 점은 “죽음이 더 많은 살인을 방지”(Wolosky 88)하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야 다른 누군가를 죽일 힘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디킨슨은 이 시를 통해 더 이상 죽일 사람이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전쟁이 끝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낸다.

앞서 디킨슨이 두 편의 시를 통해 지적인 전쟁의 규모와 전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쟁이 남긴 여파는 그녀가 1864년에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에서 명확하게 느낄 수 있다. 그녀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슬픔은 몇 사람들만 느끼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의 온 국민이 겪고 있는 일반적인 것(“Sorrow seems more general than it did, and not the estate of a few persons, since the war began” L 298)으로 확대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수많은 사상자를 속출한 전투들이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이래로 병사들의 죽음과 이들의 죽음을 마주해야 하는 생존자들의 비극적인 삶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보편적인 현상이 된 것이다. 이러한 전시 상황에 디킨슨의 오빠 오스틴 디킨슨(Austin Dickinson)의 친구였던 프레이저 스텐스(Frazer Stearns)⁵⁾라는 인물이

5) 프레이저는 앰허스트 대학의 4대 총장이었던 윌리엄 스텐스(William Augustus

전사했다. 실제로 프레이저는 남북전쟁 기간 동안 연방군을 위해 공헌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군복무를 “자기희생적 광신”(Armand 111)을 가지고 “종교적인 소명의식”(Barrett *Discursive* 113)으로 간주했다. 디킨슨이 1862년 3월 말 새뮤얼 보울즈(Samuel Bowles)⁶⁾에게 쓴 편지(L 256)를 보면 그녀는 오빠가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 공포를 느끼며 그 죽음을 살인으로 받아들인다고(“Austin is chilled—by Frazer’s murder—He says—his Brain keeps saying over “Frazer is killed”—“Frazer is killed”) 묘사한다. 하지만 프레이저의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는 기독교를 믿는 군인으로서 그의 의무를 이행하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합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뉴베른 전투가 끝난 후, 연기가 사라지고, 대포 소리가 중단되고, 정적이 소란과 혼란을 대신하자마자,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솟아올라 야영지 위를 맴돌며,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로 노래했습니다. 그렇게 전장의 끔찍한 소음으로부터 기독교 군인들의 영혼이 고요하게 일어나, 더욱 맑고 더욱 기쁘고 더욱 매혹적인 음조로 노래하면서, 그들은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어찌 우리 동지들이 쓰러진 아들과 형제들이 하느님을 믿고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다 죽었을 때, 만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Armand 112)

앰허스트 대학의 총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목사이기도 했던 프레이저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중

Stearns)의 아들이자 디킨슨의 오빠의 친구였다. 매사추세츠 81연대의 부관이었던 프레이저는 뉴베른 전투(Battle of New Bern)에서 전사했다. 그는 남북전쟁 기간 중 앰허스트 지역에서 가장 명망이 있었던 전사자 중 한 명이었으며, 그의 장례식은 1862년 3월 22일 앰허스트에서 거행되었다(Johnson 398). 또한 프레이저의 죽음에 대한 디킨슨의 반응은 그녀의 편지 L 255에 잘 드러난다.

- 6) 보울즈는 당시 뉴잉글랜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문이었던 『스프링필드 데일리 리퍼블리칸』(*Springfield Daily Republican*)의 편집장이었다. 그는 디킨슨의 가족 뿐만 아니라 친척한 디킨슨에게도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인물이자,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전장에서 순직한 것에 대해 만족할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모두가 천국에 당도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군종목사는 참전한 군인들에게 국가를 위한 그들의 대의명분을 상실하지 않도록 선전하는 국가의 대리인 역할을 떠맡음으로써 그들에게 애국심을 호소하고 “전사자의 머리에는 영광이, 생존한 영웅들에게는 승진의 징표가 수여된다”(Linderman 253)고 강조하여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에 기여했다.

또한 『햄프셔 프랭클린 특보』(*Hampshire and Franklin Express*) 신문은 당시 프레이저가 죽은 소식을 접한 가족의 반응을 실었다.

“비록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지만, 그들은 그 소식을 기독교적 체념으로 견뎠다—그들은 그를 ‘만물을 능히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손에 인도되었다고 생각했다.”

(Barrett *Discursive* 112)

이는 신이 지상에서 받은 고통을 죽은 후에 천국에서 보상해 준다는 당시 뉴잉글랜드의 엠허스트를 지배하고 있던 청교주의의 전통적인 교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전형적인 가족들의 모습이다. 그렇지만 “기독교적 체념”을 가지고 현실을 받아들였던 사람들과는 달리 디킨슨은 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가가 만들어낸 종교 이데올로기 안에서 희생된 “프레이저의 죽음과 나라 전역에 걸쳐 전장에서 발생한 젊은이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에”(Lease 72), 다음 시 「우리의 여정은 전진해갔네—」(“Our journey had advanced—”)에서 북군과 남군 모두가 전쟁의 수렁에 빠져 희생자가 되는 전쟁의 잔혹성과 현실에서의 고통을 내세워서 보상한다는 청교주의의 교리를 지적한다.

우리의 여정은 전진해갔네—
우리의 발은 거의 이르렀지
존재의 길에 나 있는 이상한 갈림길까지—
영원—그 명칭이지—

www.kci.go.kr

우리의 걸음은 갑작스런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우리 발은—마지못해—나아갔네—
 전에는—도시들이 있었고—그러나 사이에는—
 사자의 숲이 있었지—

퇴각은—가망도 없었네—
 뒤에는—봉인된 길—
 영원의 백기는—앞에 있었고
 그리고 신은—문마다 세셨네—

Our journey had advanced—
 Our feet were almost come
 To that odd Fork in Being's Road—
 Eternity—by Term—

Our pace took sudden awe—
 Our feet—reluctant—led—
 Before—were Cities—but Between—
 The Forest of the Dead—

Retreat—was out of Hope—
 Behind—a Scaled Route—
 Eternity's White Flag—Before—
 And God—at every Gate— (Fr 453)

수잔 주하즈(Suzanne Juhasz)는 디킨슨의 시에 편재한 여정이라는 은유에 주목하면서 죽음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영원성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Undiscovered 133)라고 주장한다. 이와 유사하게 제프리 하트만(Geoffrey Hartman)은 위 시에서 디킨슨이 영원이라는 백기(“Eternity's White Flag”)를 보면서 죽음을 더 이상 삶의 종착지가 아니라 영원불멸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252-53). 비록 정확하게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디킨슨의 시는 소수이지만 그녀가 1862년에 썼다고 알려진 이 시는 남북전쟁과 관련하여 해석할

경우 전사자들의 죽음을 내세에서 영원불멸로 보상한다는 청교도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시에서 디킨슨이 사용한 “전진,” “속도,” “도시,” “퇴각,” “길,” “백기”와 같은 단어들은 전시 군인들의 행군을 연상시킨다. 1연에서 “우리”로 통합된 북군과 남군은 존재의 길에 나 있는 이상한 갈림길에 당도하게 되어 영원에 직면하게 된다. 2연에서 2행의 “led”와 4행의 “Dead”는 서로 각운을 이루어 그들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제 양군은 자신들이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들의 발을 마지못해 강제로 이끌리듯 천천히 내디딘다. 이어서 화자는 양군이 죽음에 다다른 기까지 도시를 파괴하면서 지나가고 죽은 시체들로 가득 찬 숲을 가로지르며 전쟁을 치러야 했던 과정을 보여준다.

마지막 연에서 지나간 행군을 끝낸 양군은 마침내 영원이라는 하얀 깃발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때 후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문에 서 계신 신께서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봉인하셨으므로 결국 양군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군대는 앞으로 나아가서 영원이라는 하얀 깃발을 잡을 수도 있고 또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군대는 자신들이 영원까지 도달하는 데에 마지못해 이끌려 왔듯이 신이 모든 문에 서서 지켜보고 계시기에 어쩔 수 없이 영원의 백기를 붙잡아야 한다. 설령 다시 후퇴를 하더라도 양군은 재차 시신이 널린 도시와 사자(死者)의 숲을 통과해야 하는 절망과 고통을 겪어야 한다. 이 시에서 디킨슨은 인간의 선택과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전쟁의 본질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청교도들이 주장하듯 죽음의 문턱을 넘어 내세에서 영원과 불멸을 획득하는 것이 과연 전쟁의 희생자들에게 위안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처럼 디킨슨은 청교주의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실제로 그녀는 종교에 헌신적이었던 가족과 달리(“They are religious, except me” L 261) 회의적이어서 교회에 출석하는 일도 거부했다. 하지만 디킨슨은 자신의 시 「나는 황야를 본 적이 없고」(“I never saw a Moor”

Fr 800)에서 천국이 존재한다고 확신(“I never spoke with God/ Nor visited in Heaven—/ Yet certain am I of the spot” Fr 800, 5-7)한다고 말하며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러한 그녀의 믿음은 「그들은 눈송이처럼 떨어졌네—」(“They dropped like Flakes—”)라는 시에 잘 나타난다.

그들은 눈송이처럼 떨어졌네—
 그들은 별처럼 떨어졌네—
 장미 꽃잎처럼—
 6월을 가로질러 갑작스레
 손가락 지닌 바람이—불 때—

그들은 이음새도 없는 풀 속에서 죽었지—
 어느 눈도 그 장소를 찾을 수 없네—
 하지만 신께서 모든 얼굴을 소환하시네
 그의 변경할 수 없는—명단에서.

They dropped like Flakes—
 They dropped like stars—
 Like Petals from a Rose—
 When suddenly across the June
 A Wind with fingers—goes—

They perished in the seamless Grass—
 No eye could find the place—
 But God can summon every face
 On his Repealless—List. (Fr 545)

페이스 배럿(Faith Barrett)은 디킨슨이 이 시에서 “자연의 조화로운 순환을 은유로 사용하여 전쟁터에서 발생하는 대학살”(Addresses 79)의 현장을 묘사한다고 주장한다. 1연에서 화자는 전장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을 “눈송이,” “별,” “장미 꽃잎”이 떨어지는 자연의 이미지에 비유한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연 혹은 계절이 반복적으로 순환하듯이

병사들이 지속적으로 전사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리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2연에서 화자는 갑작스레 불어온 바람에 의해 쓰러지는 풀처럼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을 묘사한다. 여기서 디킨슨은 병사들의 죽음을 “끔찍하게 죽다,” “갑작스럽게 죽다,” “소멸하다”라는 뜻을 가진 “perished”로 표현한다. 이제 화자는 어느 누구도 병사들이 묻힌 장소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디킨슨은 전쟁을 부추기면서 전사자들의 죽음을 천국에서 영원불멸로 보상한다는 청교주의의 교리에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전쟁의 희생자들이 살아서 돌아올 수는 없지만 하느님께서 명분도 없이 죽은 양측 병사들을 천국으로 소환하시고 구원으로 보상해 주시리라 믿는다.

디킨슨은 1864년 6월 초 히긴슨에게 보낸 편지(L 290)에 「내가 아는 유일한 소식들은」(“The only news I know” Fr 820)이라는 시의 1연을 첨부했다. 이 시의 1연에서 디킨슨은 당대 중요한 사건들을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던 주요 매체인 신문이나 전단을 통해 전사자들의 명단과 전쟁의 피해를 담은 사진들을 보며 온종일(“Is Bulletins all Day” Fr 820, 2) 전쟁의 참상을 경험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녀가 접하는 모든 소식은 “불멸”로부터(“From Immortality” Fr 820, 3) 전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디킨슨은 종교 이데올로기가 주장하듯 병사들의 죽음이 정당하고 명예롭지는 않더라도 그 죽음이 천국에서 영원불멸로 보상받기를 염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에서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개개인의 병사들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 신께서 병사들을 동등하게 기억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붙들고 있다.

또한 디킨슨은 「우리의 평화 위에 자리 잡은 맹위를」(“A Tooth upon Our Peace”)이라는 시에서 금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병사들의 죽음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낸다.

우리의 평화 위에 자리 잡은 맹위를
 평화가 지울 수는 없지—
 그러면 무슨 이유로 맹위가 존재하지?
 은총에 활력을 복돋기 위함이지—

천국은 지옥을 가지지—
 그 자체로 신호를 알리기 위해—
 그리고 그 앞에 놓인 모든 징표는—
 희생으로 도금되어 있네—

A Tooth upon Our Peace
 The Peace cannot deface—
 Then Wherefore be the Tooth?
 To vitalize the Grace—

The Heaven hath a Hell—
 Itself to signalize—
 And every sign before the Place—
 Is Gilt with Sacrifice— (Fr 694)

이 시에서 화자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맹렬한 힘인 전쟁이 발생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해 화자는 왜 이러한 힘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가진다. 그 힘은 신의 은총에 응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어지는 연에서 화자는 천국이 그 안에 지옥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즉 이 시에서 디킨슨은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병사들의 희생이 필요하듯, 천국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지옥의 관문을 거치지 않으면 천국에 도달할 수 없다는 청교주의의 교리를 지적하면서 전쟁과 병사들의 죽음을 정당화한 종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동시에 디킨슨은 1862년 2월 히긴슨에게 보낸 편지에서 “최고의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상실의 시험”을 불가피하게 치러야 한다(“Best Gains—must have the Losses’ Test—” L 280)고 말한다. 디킨슨은 병사들의 죽음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고난의 과정을 거친 후 순금이 되어 나온다는 욕기 23장 10절의 구절처럼 평화를 성취하

기 위해 고통과 희생을 겪는 것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임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고온에서 몇 차례의 고통을 겪은 후 녹슬지 않는 금이 탄생하듯, 금박 입힌 희생은 군인들의 희생이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유용성 속에서 귀중한 것이 되도록 기리고자 하는 행위이다.

III. 결 론

지금까지 디킨슨의 시를 살펴본 바와 같이 그녀가 전시에 병사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충실한 여성의 역할(Barrett *Discursive* 107)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쟁에 얼마나 깊게 관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디킨슨은 남북전쟁과 관련된 담론들을 “회피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그 담론들을 비판하는 답변이나 반응”(Barrett *Discursive* 109)으로 응수했다. 디킨슨은 남북전쟁 시기에 은둔하며 살았지만 그녀 또한 전쟁의 공포와 상흔을 겪었고, 시를 통해 국가와 공동체가 직면한 역사적 사건에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냈다. 디킨슨은 전쟁의 명분을 앞세워 승리를 거두기 위해 병사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종교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전사자들의 죽음을 애국적·종교적인 수사로 표현하기보다 이러한 수사들이 전쟁을 강행하도록 부추기는 방식에 예리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디킨슨은 누구에게도 위안이 되지 않는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드러내면서 병사들의 죽음이 기독교에서 주장하듯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무의미한 살상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디킨슨은 남성들이 구축한 세계에서 억압을 받았지만 청교도의 교리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며 죽은 병사, 자식, 혹은 남편이 천국에 갔다고 믿었던 사람들처럼 청교주의에 순응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결국 그 남성들 또한 그들이 구축한 세계의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디킨슨은 「적어도—기도하는 것만이—

남아있네—남아있네—」(“At least—to pray—is left—left—” Fr 377)라는 그녀의 시처럼 전시에 히긴슨을 포함하여 양군 모두가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though not reared to prayer—when service is had in Church, for Our Arms, I include yourself[Higginson]” L 280)했다. 또한 디킨슨은 「그것의—이름은—“가을”—」(“The name—of it—is “Autumn”—” Fr 465)이라는 시에서 햇빛으로 온통 물든 가을의 이미지를 통해 전쟁이 단지 참전한 군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디킨슨은 이 시의 마지막 연에서 전쟁의 폭력으로부터 물리적인 거리를 둔 채 고향으로 병사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여성이나 어린아이가 착용하는 모자인 보닛에도 병사들의 피가 흩뿌려진(“It sprinkles Bonnets—” 9) 장면을 묘사한다. 디킨슨은 참전 군인만이 전쟁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전쟁터 밖에 있는 가정도 연관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나라 전체가 전쟁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아가 디킨슨은 그녀 자신을 포함하여 전쟁터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놓고 밤낮으로 불안과 걱정에서 시달리거나 그들을 상실한 사람들의 심정을 위로한다는 측면에서도 기독교의 유용성을 인정한다.

디킨슨은 “역사적 맥락과 관련된 활동과는 동떨어진”(Keller 111) 은둔자의 이미지를 넘어서서 그녀의 시를 통해 종교가 가렸던 전쟁의 문제들을 제기했던 시인이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전시에 서로에게 충구를 겨누었던 병사들을 모두 국가의 운명을 떠맡았던 동일한 존재로서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해, 그리고 생존자와 그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기독교적 세계관의 애도의 서사를 구가하는 복합적인 태도를 취한다.

《성균관대》

인 용 문 헌

- Barrett, Faith. "Addresses to a Divided Nation: Images of War in Emily Dickinson and Walt Whitman." *Arizona Quarterly* 61 (2005): 67-99.
- . "'Drums off the Phantom Battlements': Dickinson's War Poems in Discursive Context." *A Companion to Emily Dickinson*. Eds. Martha Nell Smith and Mary Loeffelholz. Malden: Blackwell, 2008. 107-32.
- Cody, John. *After Great Pain: The Inner Life of Emily Dickinson*. Cambridge: Harvard UP, 1971.
- Dandurand, Karen. "New Dickinson Civil War Publications." *American Literature* 56.1 (1984): 17-27.
- Dickinson, Emily. *The Letters of Emily Dickinson*. Ed. Thomas H. Johnson. Cambridge: Harvard UP, 1958.
- . *The Poems of Emily Dickinson*. Ed. R. W. Franklin. Cambridge: Harvard UP. 1999.
- Gerald F. Linderman. *Embattled Courage: The Experience of Combat in the American Civil War*. New York: The Free Press, 1987.
- Gilbert, Sandra M., and Susan Gubar. *The Madwoman in the Attic: The Woman Writer and the Nineteenth-Century Literary Imagination*. Yale UP, 1984.
- Hartman, Betsy. *The American Syndrome: Apocalypse, War, and Our Call to Greatness*. New York: Seven Stories Press, 2017.
- Hartman, Geoffrey. "The Voice of the Shuttle: Language from the Point of View of Literature." *The Review of Metaphysics*. 23.2 (1969): 240-58.
- Juhasz, Suzanne. *Naked and Fiery Forms: Modern American Poetry by Women: A New Tradition*. New York: Harper and Row,

1976.

_____. *The Undiscovered Continent: Emily Dickinson and the Space of the Mind*. Bloomington: Indiana UP, 1983.

Keller, Karl. *The Only Kangaroo among the Beauty: Emily Dickinson and America*. Johns Hopkins UP, 1979.

Lease, Benjamin. *Emily Dickinson's Readings of Men and Books: Sacred Sounding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0.

Leyda, Jay. *The Years and Hours of Emily Dickinson*. New Haven: Yale UP, 1960.

Sewall, Richard B. *The Life of Emily Dickinson*. Cambridge: Harvard UP, 1974.

St. Armand, Barton Levi. *Emily Dickinson and Her Culture: The Soul's Society*. Cambridge: Cambridge UP, 1984.

Stephenson, Michael. *The Last Full Measure: How Soldiers Die in Battle*. New York: Crown, 2012.

Wolosky, Shira. *Emily Dickinson: A Voice of War*. New Haven: Yale UP, 1984.

저자: 오영광/성균관대학교/대학원생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oyk0620@naver.com